

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교환

중국 산둥성의 환경 문제와 그 대책

1. 산둥성의 환경 특성

환경 용량이 비교적 작고, 한사람당의 수자원의 점유량은, 전국 평균 수준의 6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.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고, 1평방킬로미터 당 592명이며, 일본이나 한국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.

경제 총량이 비교적 크고, 2006년의 GDP는, 2만억위안을 넘고, 성장률은 14.7%이다.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비교적 많아, SO₂나, COD, 분진의 배출 총량이 많아, 환경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.

향후 5년간 산둥성의 GDP는 변함없이 연평균 약 10%의 신장률로 상승해, 에너지나 자원이 직면하는 부담감은 더욱 더 커지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과 환경 용량의 모순이 부딪침으로 인해 환경보전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.

2. 대책과 목표

가. 환경 경제와 정책

- 시나 구의 오수처리 비용이 1t 당 0.8위안 이상까지 가격이 올라, 오수처리는 시장화의 운영 조건을 갖추고 있다.
- 발전소의 탈유에 대해서는, 1킬로와트 당 0.015위안의 전기세가 우대되고 있다.
- 의료 쓰레기의 처리비가, 1일 한 침대당, 2원까지 가격이 올라, 의료 폐기물 처리는 시장화의 운영 조건을 갖추고 있다.

나. 향후 5년간의 환경보호 목표

- GDP 당 에너지 소비는, 2005년에 비하면 22% 감소했다.
-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, 16%이상 삭감되었다.
- 60%이상의 수역이, 수질 환경 일정지역 기준에 도달했다.
- 도시에 있어서의 대기 환경질이, 2급 기준보다 우수한 날이, 연간의 90%를 넘었다. 또,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의 탈유 시스템을 확립했다.
- 위험 폐기물이나 방사성 폐기물에 관계된 안전 처리율은, 각각, 95%와 100%에 이르렀다.
- 「10-5」(※역주)①기간에 있어서의 환경보전에 관한 투자액은, 3,600억위안으로, 같은 시기 GDP의 3%를 차지한다고 추정된다.

다. 주요 희망 분야

- 수질오염의 규제 분야: 도시의 오수나 제지, 화학공업, 식품 가공, 방적 염색 등의 공업폐수 처리, 수자원의 리사이클 이용, 유역의 수질 개선과 생태 수복.
- 대기오염의 규제 분야: 전력, 건재, 철강 등의 업종에 의한 화기 통로 가스 탈유, 탈초, 효율적인 집진 등 요점이 되는 기술이나 설비, 효율적인 저오염 배출 연소 기술과 제품, 공업 배기가스, 쓰레기 매립 가스, 혐기(嫌氣) 반응 가스의 회수, 정제, 이용하는 기술과 설비.
- 고체 폐기물 처리 처분 분야: 공업 고형 폐기물, 건축 쓰레기, 도시 생활 쓰레기, 토양 수복 등에 의한 무해화 처리 처분과 자원의 리사이클.

- 자원의 리사이클 분야 : 폐수, 공업이나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, 농업의(열매를 딴 후의) 줄기 등의 자원의 리사이클.
- 환경 관리와 모니터링 분야 : 환경 관리 정책, 자동 모니터링 기술과 설비.

3. 정책 경향과 협력에 관한 제안

가. 정책 경향

- 공공 재정의 환경보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.
- 「정政, 산産, 학學, 연研」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보전 산업기술의 창조 체제와 메커니즘의 구축을 찾는다.
-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, 환경보전 산업 시장의 질서 규범에 맞도록 한다.
- 국내외의 뛰어난 환경보전 기업과 기관이, 산동성의 환경보전 사업과 산업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해, 그들이 발전할 기회를 부여한다.

나. 국제 협력에 관한 제안

- 양국 및 각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.
- 사람들의 교류를 활발화시킨다.
- 환경보전 산업에 관한 협력을 늘린다.

역주 : ※① 「10-5」 : 제 10 차 5 개년 계획으로, 기간은 2001 년~2005 년까지를 가리킨다.